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비 부담 줄인다

내년 건보료 3.2% 인상 ... 직장인 월 평균 3653원 올라

선택진료비 폐지하고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3.2%로 결정됐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 17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3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2800원이 각각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약 28%의 비급여가 해소됐으며, 2018년 1월~2019년 4월까지 약 3600만 명의 의료비 2조 2000억 원이 경감됐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

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을 통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20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변산반도국립공원 수상휠체어 도입

모래사장·해변체험 가능

백사장길 조성 이동 쉽게

변산반도국립공원이 탐방약자를 위한 수상휠체어를 도입·운영한다. <사진> 국립공원공단은 이달까지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 해변에서 탐방약자를 위한 '수상휠체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약자나 중증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해변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바다를 가까에서 보거나 바닷물에 몸을 담구는 등 여름철 해변체험이 어려웠다. 하지만 수상휠체어를 이용하면 모래사장, 해변가, 얕은 물가 등에 쉽게 접근하고 이동성을 높일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변산반도 고사포 해변을 시작으로 수상휠체어 대여와 더불어 일반 휠체어가 모래사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아자매트를 활용한 백사장길 조성 구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탐방약자들의 국립공원 해변 탐방에 도움이 되고자 수상휠체어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국립공원 저지대 탐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서구 양동주민들, 다문화 쌍둥이 돌잔치

광주시 서구 양동 주민들이 쌍둥이 남매 돌을 맞은 다문화가족에게 돌잔치를 열어줬다.

27일 서구 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지난 25일 파레스호텔에서 '다문화가족 쌍둥이 사랑의 돌잔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5년이 지나도록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생활하다 쌍둥이의 첫 돌을 맞은 다문화 가정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은 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개인 후원단체 모임 '도담도담' 회원들이 아이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웃들은 하은·하준 쌍둥이 남매에게 돌상·떡케이크·미야방자복걸이·꽃바구니·이불세트 등 사랑이 담긴 선물을 전달하며 축하했다. 남매의 엄마 레티눅감(37·베트남)씨는 "많은 이웃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며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25일 광주시 서구 파레스호텔에서 열린 '다문화가족 쌍둥이 사랑의 돌잔치'에서 양동 주민들이 하은·하준 쌍둥이 남매의 첫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 제공>

광주 동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아동요리지도사 등 총 95명
일자리 위한 특성화 과정

광주시 동구가 평생학습도시특성화 프로그램 참여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26일 동구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문화성장, 청년·여성·중년층 등 세대별 일자리를 위한 특성화 과정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별 모집 인원은 ▲아동요리

도사 자격과정(20명) ▲실버요리지도사 자격과정(20명) ▲드론교육지도사 자격과정(15명) ▲브랜드 창출과정 가족공예(40명) 등 총 95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만 19세~39세 청년이면 우선대상자가 되고, 나머지는 선착순이

다.

수강을 원하는 주민은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후 작성해 동구청 청년체육과 또는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청년·여성·중년층 등 세대별 일자리를 위한 이번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좋은 교육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궐련형 전자담배 이용자 80%는 일반담배도 흡연

복지부 조사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 10명 중 8명은 일반담배도 함께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11월 조사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실태 및 금연실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80%는 일반담배도 함께 피운다"고 27일 밝혔다.

울산대의대 조홍준 교수 연구팀에 의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전국의 20~69세 남녀 7000명 중에서 현재 담배제품 사용자 1530명(궐련 1364명·궐련형 전자담배 574명·액상형 전자담배 39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574명)를 분

석한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사람은 13.4%(77명)에 불과했다.

일반담배와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47%(270명), 액상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5.7%(33명), 세 종류의 담배를 모두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33.8%(194명)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80.8%)은 일반담배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고, 함께 사용하는 사람의 하루 흡연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제품에 따른 1일 흡연량을 비교해 보니 일반담배만 피우는 사람은 1일 평균 12.3개비, 궐련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사람은 8.7개비, 둘 다 함께 사용하는 사람은 17.1개비로 분석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10%→5%

내년부터 절반으로 줄어

2020년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산아, 저체중아(제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지고, 5세(60개월)까지 '본인 부담률 5%'를 적용 받는다. 기존에는 3세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신창동 가도빌딩, 근린상가 2층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4층중 2층 201호 전체, 건물170평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2억
- 대출-3억5000만원있음 즉시입주가능
- 임대 - 보증금1억에 월400만 가능
- 매매 - 매수자 제시 요망(9월10일까지)

문의. 010-3605-5000